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청국장

우리 선조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콩을 활용한 장(두장, 豆醬)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으며 이는 일찍이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우리가 흔히 콩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두'로 백태 혹은 메주콩이라고도 한다. 대두의 원산지는 한반도와 만주로 우리 땅 곳곳에서 잘 자라며 예로부터 쌀만큼이나 중요한 농작물로 여겨져 왔다. 이처럼 한반도는 두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두장의 대표 격인 된장은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이다. 하지만 된장을 얻기 위해서는 꼬박 1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이 요구된다. 콩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조상들이 이처럼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드는 된장에만 만족했을 턱이 없다. 발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변수를 최소화하는 일종의 속성 장도 다양하게 개발해 놓으셨다. 메주를 빠개 가루를 내어 발효시킨 막장은 장을 담근 지 보름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다. 보리에 콩을 섞어 만든 메주에 무, 오이, 가지, 배추, 고추 등의 채소 썬 것과 함께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즙장은 햇볕에서 일주일만 숙성시키면 완성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속성 장이 있지만 그중에서 으뜸은 청국장이다.

청국장은 삶은 콩을 짚과 함께 혹은 짚으로 엮은 오쟁이에 담아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킨다. 이렇게 하면 짧게는 이틀 만에도 곰삭은 맛을 내는 청국장을 빚을 수 있다. 같은 콩을 활용해 된장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된장 못지않은 맛과 영양을 가진 또 하나의 장을 얻는 셈이다. 예로부터 청국장은 주로 겨울과 봄에 만들어 먹었다. 된장을 담그기 위해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피고 건조되는 동안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청국장이 익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았다. 속성으로 발효시킨 청국장은 겨우내 먹는 국과 찌개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조미료였던 셈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국장의 또 다른 미덕은 무염 발효 식품이라는 점이다. 된장은 소금물에 메주를 띄워 발효시키는 까닭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반면 높은 염분 섭취가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속성 장인 청국장은 소금을 넣지 않고 오로지 삶은 콩과 높은 온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각종 발효균으로 속성시킨다. 장기 보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청국장에 굳이 소금을 넣을 이유가 없었다. 염분 걱정 없이 얼마든지 먹어도 좋은 청국장의 장점은 과거보다 오히려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청국장과 유사한 속성 장의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식품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낫토다. 675년 이후 무려 1200년 동안 육식을 금지했던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콩을 발효시킨 장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그 제조 방법과 기간이 청국장과 거의 동일한 낫토 역시 그중 하나였다. 그러다 1906년 발효에 관여하는 여러 균들 중에서 볏짚에 있는 낫토균만 따로 추출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삶은 콩에 배양한 낫토균을 넣어 발효시킴으로써 잡냄새가 없고 안정적인 품질의 낫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발효 식품인 '템페'는 인도네시아 콩 소비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일상적인 음식이다. 삶은 콩을 히비스커스 잎이나 티크 잎으로 감싸 30도 시(C) 정도에서 2일간 숙성시키면 흡사 콩떡과 같은 덩어리가 된다. 이를 얇게 썰어서 간장을 발라 굽거나 기름에 튀겨 밥과 함께 먹는다.

태국과 라오스의 '토아나오'는 삶은 콩을 티크나무 잎을 깐 대바구니에 담아 3일 동안 발효시킨다. 태국의 경우 찰밥과 함께 먹거나 각종 소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라오스에서는 쌀국수의 매운 양념에 사용한다. 삶은 콩을 무화과나무 잎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미얀마의 '페보옷'은 절구에 찧어 곱게 가루로 만들어 여기에 고춧가루 등의 부재료를 섞어 밥에 뿌려 먹거나 볶음요리나 국의 조미료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아시아 각 나라와 지역에서는 청국장과 유사한 형태의 속성 장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활용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식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콩을 사용하고 볏짚이나 나뭇잎에 있는 균을 발효에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 가정이건 음식점이건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낫토가 함께한다. 일본의 낫토는 가열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이 기본이다. 생식을 하는 만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각종 부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낫토의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규명됨에 따라 낫토는 이제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의 건강식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0여 년 전부터 그 대열에 합류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대형 식품회사에서 낫토를 생산·수입하고 있다. 덕분에 2016년 낫토의 국내 시장 규모는 250억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0배나 성장했다고 한다. 급기야는 청국장을 추월했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까지 들린다.

어차피 콩을 발효시킨 식품이니 그것이 청국장이면 어떻고 낫토면 어떠랴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전통 방식과 발효균으로 만든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청국장을 보다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솜씨 좋은 조상들이 애써 남겨주신 것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낫토에 밀려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 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몸이 받는 스트레스 줄이기

박 지 환
광주 우리들병원 원장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학생은 새 학기와 함께 만나게 될 친구 생각에 두근거리고, 엄마는 겨울 내내 쌓였던 집안을 청소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봄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들로 떠날 생각에 설렌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일시정지시키자. 매년 3월~5월은 병원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다. 허리나 목, 어깨 등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 역시 많은 때다. 겨울 내내 큰 움직임 없이 지내던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근육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봄을 맞이하기 전,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팁을 공유한다.

조그마한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무릎을 구부리고 척추를 반드시 세운 다음 조심스럽게 들어야 한다. 즉 물건은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며 들어올린다. 또 물건을 좌우에 나누어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힌 채 팔을 몸에서 멀리 뻗은 자세로 드는 것은 위험하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어 무릎을 굽혀 접근해 들어올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루종일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적당한 간격으로 일어나서 허리를 바로 펴서 뒤로 젖혀주며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하면 좋다. 독서할 때는 책상에서 책받침대를 사용해 보는 것이 엎드려서 보는 것보다 허리에 훨씬 무리를 덜 준다. 언제나 고개를 바로 세우고 허리도 바로 펴지도록 한다. 게임, 바둑, 오락 등을 할 때도 방바닥에 앉는 것보다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딱딱한 부동 자세보다는 한 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것이 좋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나 바닥의 물건을 주울 때도 허리를 굽히지 말아야 하며, 허리를 바로 세운 채 일할 수 있도록 자루가 긴 도구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샤워할 때도 어중간하게 엎지는 자세보다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허리 수술 후에는 높은 산을 오르거나 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리기를 할 때 두 발이 모두 땅에 있지 않다가 한 발을 내디뎠을 경우, 몸무게가 한쪽 발에 전달돼 허리에 받는 하중이 크기 때문이다.

높은 산이나 내려오는 계단의 경우도 몸무게를 모두 한쪽 발에 전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허리가 좋지 않으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허리에 도움이 된다. 엎드려서 자는 것은 목이 필요 이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허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옆으로 잘 때는 높이가 알맞은 베개로 머리, 목, 몸이 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자세이다. 또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때는 다리에 적당한 쿠션을 넣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히 좋은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편한 자세가 좋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침대 사용법도 중요하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방바닥보다 침대를, 밥상보다 식탁을, 그리고 소파를 사용하면 좋다. 침대와 식탁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앉거나 굽히면서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또 쿠션을 등에 받치고 바르지 못한 자세로 TV를 시청하는 것도 허리에 나쁘다. 또한 침대는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매트리스가 조금 단단하거나 딱딱한 공기 쿠션 형태가 알맞다.

허리의 건강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허리 강화 운동 및 유연성 운동이다. 허리에 충격을 주거나 갑자기 몸을 비트는 동작을 삼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수시로 허리와 목 그리고 어깨를 바르게 펴는 동작을 하면 좋다.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조그마한 운동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좋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쉬면서 몸을 풀어 주어야 한다. 공부하면서도 반드시 중간에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기 고

광주형 도시 재생, 골목길 살리기로 시작하자

임 성 기
(사)광주도시재생연구소장·공학박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구 유럽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여행하다 보면 옛 도시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좁은 골목길 여행의 매력은 무엇일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새로운 길이라면, 골목길은 사람들이 오래 사용해오던 추억과 정이 묻어나는 동네의 옛길이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시간이 멈춘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그러기에 골목길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포근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어찌보면 골목길은 우리 삶의 옛 모습인지도 모른다. 유럽의 단정하고 사람 냄새나는 골목길은 그들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유럽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행을 낯선 공간과 만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점, 선, 면으로 이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점의 여행은 유적지나 박물관, 미술관 등 도시 속 특정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면의 여행은 한정된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모습과 생활 패턴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 여행을 의미한다. 선의 여행은 기차나 도로와 같은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주변의 지형지물을 감상하고 상상력을 자극해 보는 여행이다. 바로, 선의 여행에서 골목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의 낡고 오래된 골목길에서 아련한 추억과 함께 감성이 묻어나는 자기만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된다.

최근 광주 도시 문화에 차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소박한 골목길에 매력적인 가게, 길거리 카페촌,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것, 개성 있고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13 송정역 골목길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서 쇼핑에 익숙한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르게 골목길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골목길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자동차 중심의 대형 상권이 골목길 중심의 보행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다.

골목길이 어떻게 도시와 사람에 가치를 제공하는가? 골목길이 지닌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골목길은 다양한 유형의 저층 건물, 거리의 보행 친화성, 주민과 상인이 공존하는 건축 등을 특징으로 한다. 매력적인 골목길을 걷다보면 골목 양쪽에 촘촘하게 들어선 가게 입구와 거리 가판 등이 우리를 '걷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골목길이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마저 갖추면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 공간으로 사람을 끌어 모을 것이다.

1913 송정역 골목길 사례처럼, 풍요로운 골목이 가득한 도시는 젊은 세대가 모여든다. 단순히 옛 정취를 느끼며 향수에 젖는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도시 문화를 제공해 창조 인재와 그들이 도전하는 창조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의 한 모형이다. 또 골목 상권은 중요한 관광 아이템이다. 여행 트렌드는 자연과 역사에서 도시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 골목 상권의 부상은 효과적인 도시 재생을 돕는다.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과 돈을 끌어들인다. 창조적인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예술과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뛰어난 창업가를 배출하기도 한다.

골목길을 발전시키는 주체는 역시 사람이다. 예술가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던 서울의 홍대, 삼청동, 가로수길 등의 거리가 골목길 상권으로 크게 성장했던 것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모이면 그들만의 문화가 생겨나고,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된다.

과거 우리가 물리적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도시 재생과 골목 산업 정책으로 창조 도시를 지원해야 한다. 골목길의 문화 자산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문화와 창업 지원 시설 등 골목길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재에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목길이 다시 살아날 때 광주의 매력 또한 발산할 것이라고 믿는다.

社 說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확대 바람직하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줄고 3~4인 선거구는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다당제 구도 속에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군소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엊그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광주·전남 기초의원 정수가 68명과 24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5개 구의회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는 인구와 동(洞) 수 적용 비율이 현행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됨에 따라 동구가 1석 줄고 광산은 1석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인구가 적은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 지역 25개 구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은 9개, 2인 선거구는 16개다.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는 그동안 사실상 지역 내 1·2당이 나눠 갖는 독과점 구도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4인 선거구 3곳을 신설하고 3인 선거구는 13곳으로 늘리며, 2인 선거구는 4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 역시 2인 선거구를 44개에서 37개로 7개 줄이되 3인 선거구는 29개에서 31개로, 4인 선거구는 9개에서 11개로 각각 2개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출 방식은 그동안 중선거구제로 운영됐지만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 탓에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이는 결국 정치 신인과 군소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거대 정당의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와 같은 다당제 구도에서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정착 계기로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한 뒤 그제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뿐만 아니라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매우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한 셈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성과라 하겠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련의 합의가 잘 실천된다면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차질 없이 개최돼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측의 태도 변화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특사단은 오늘 워싱턴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이 수차례 핵 개발 중단 약속을 파기하면서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개발한 탓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설득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특사단은 설득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야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나미야 우편함

추리소설을 주로 쓰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더불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 작가다. 그의 작품은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어렵다. 술술 읽히는 문체와 함께 탄탄한 스토리가 어우러져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든다.

최근 그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민 상담 우편함을 운영하는 광주의 청년들이다. 정성 들여 쓴 '손편지'로 위로를 전했던 그들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외롭고 힘든 삶의 마라톤에서 한 템포 쉬어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문제 해결의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오늘 하루 어땠냐" 물어주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다. '나미야 우편함'이 만들어 낸 작은 기적이다.

2016년 시작된 '나미야 우편함'은 2012년 출간돼 국내에서 30만 부 넘게, 전 세계에서 12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소설 속 낡은 잡화점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누군가 가게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 두면 우유 상자에 나름의 해결책을 담아 놓는 것이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사고를 치고 잡화점에 숨어든 청년 3명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편지에 답장을 하게 되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 주변에도 나미야 잡화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다. 지역 청년문화단체 허브는 그 꿈을 현실로 옮겼고, 10~40대 봉사자들이 '나미야 할아버지'가 돼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며 오랜만에 운영자에게 전화를 해 봤더니, 나미야 우편함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 2년여 동안 지켜 왔던 '손편지' 원칙을 깨고 이메일(namiya114@daum.net)도 받기 시작했다는 거다. 갈수록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데다 빠른 답장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작은 격려를 받고 싶다면, '나미야 우편함'(광주시 동구 궁동 52-2, 3층 나미야 할아버지)을 기억하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